

# 의암호변 따라 이어진 낭만 감성 가던 길을 멈추게 한다

춘천

의암호·중도 수려한 풍경 속 이색 카페  
추억 가득 '애니메이션 박물관'·'토이로봇관'  
자연에서 낭만을 '박사마을 어린이클럽핑장'  
동물 없는 동물원 'Jump AR' 등  
춘천 서면,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6m 높이의 로봇 태권V.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강원도 춘천시 서면은 시내에서 가려면 배를 타야 할 정도의 교통 오지였다.  
이제는 의암호변을 끼고 이어진 도로가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만큼 빼어난 드라이브 코스로 '핫'하다. 세계질 특유의 경관을 뽐내는 의암호와 중도가 한눈에 보이는 풍경을 지닌 카페들은 서면을 SNS-인터넷 스타로 만들었으며 많은 이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카페만 방문한다면 이곳을 다 즐겼다고 할 수 없다. 주변에는 애니메이션박물관, 박사마을 어린이클럽핑장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춘천 서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다.

◇의암호 보며 인생샷 '찰칵'  
의암호와 중도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면서 힐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각각색의 카페들은 드라이브 코스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 강에서 부는 상쾌한 바람을 타고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쳐 지나가면 가던 길을 멈추게 된다.

도로변 곳곳에서 성업 중인 카페만 어림잡아 5곳 정도다. 카페에서 보이는 리뷰는 1분1초를 때려 쳐터 찬스로 만들 만큼 매력적이다.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시한다면 "이곳이 어디야?"란 댓글이 끊임없이 달릴 것이다. 들어가갈 때 휴대폰 배터리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이 꺼지는 순간 그 풍경을 카메라 사진으로 담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득 안고 카페 문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카페 카르페와 이디야커피 춘천의암호점은 주말마다 매장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의암호가 보이는 야외 정원 때문이다. 주말에 야외 정원에서 폭신한 소파에 앉아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소소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인근의 아메카제와 카페론, 어반그린 등과 같은 카페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겐 입맛대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명소다.

◇중도에서 즐기는 로맨틱한 야경에 '심취'  
해가 떨어진 시간에 춘천대교를 지나갈 때 어두운 중도를 홀로 밝히는 건물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제는 레고랜드가 들어설 중도를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 구불구불한 길을 화살표대로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비엔나커피하우스 춘천레고랜드점. 이곳의 3층 야외 테라스의 경치는 날이 풀릴 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절여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로, 드라이브 삼아 들어가면 제격이다.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게 되는 이유는 소양강 건너편 춘천의 도심 야경을 한 눈에 감상 할 수 있는 매력 때문이다.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도 야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어린이 시절 추억과 낭만 '가득'  
아이들에게는 놀이공간이고, 부모들에게는 추억을 제공하는 장소인 애니메이션 박물관도 춘천 서면의 명소다. 2003년에 개관해 누적 50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만점인 공



춘천시 서면 의암호변에 모여있는 카페들.



춘천시 서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내 갤러리 툰.

간이다. 지난해 50만명이 방문하면서 명실공히 전국구 이색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박물관에서는 애니메이션 역사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촬영 기법, 카메라, 자료 설명 등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1915년 흑백 영상부터 현재까지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변천사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수많은 제작진의 노력과 손길로 그림 한장씩 모인 짧은 영상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실감이 된다.

1층의 상상의 계단을 올라가면 2층부터는 국가별 애니메이션관이 조성됐다. 재팬과 애니메이션의 합성어인 '재패니메이션'의 캐릭터들과 월트 디즈니사 대표 캐릭터이자 미국의 상징인 '미키마우스'까지 설명돼 있는 애니메이션관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가 봤던 만화다"라는 말을 절로 튀어나오게 만든다.

이밖에 본인의 얼굴을 구름빵, 뽀로로 등의 캐릭터와 자동으로 합성해주는 체험을 할 수 있고, 탈러나 하니 등의 한 장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입히는 더빙관이 마련돼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놀러가기에 제격이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에 가족, 연인의 목소리를 담은 것만으로도 신기한 경험이 될테다. 또 6m 높이의 로봇 태권V가 있는 공간은 1970년대 영화관·만화방을 재현해 포토존으로 손색이 없다.

애니메이션박물관 옆에 토이로봇관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리오네트 로봇 공연단이 아이들 뺨치는 절도 있는 칼군무로 아이들을 반기고 있다. 또 내부에서는 로봇 레이스, 축구 등 게임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각자 흥미로워 보이는 게임들을 즐긴다. 토이로봇관의 꽃인 K-POP에 맞춰

로봇들을 따라 꼬물꼬물 춤추는 자녀들을 본다면 미소가 절로 나올 것이다. 오전 2번, 오후 5번 총 7번의 로봇 댄스타임이 시작되며 라닝타임은 13분 가량이다.

특히 키덜트(어린이 Kid와 어른 Adult의 합성어) 부모들에게는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이 로봇 게임과 공연을 즐기는 사이 어른들은 토이숍에서 로봇 프라모델이나 장난감, 피규어 등을 구경하면서 추억에 빠져든다. 토이숍은 관람 코스 마지막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자연 감성 놀이터로 '힐링 충전'  
춘천 서면에 들르기 전에 간단히 요것거리나 도시락을 챙기는 것도 좋다. 박물관 뒤쪽에 1만5,000㎡ 규모의 넓은 잔디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암호가 보이는 이곳은 피크닉 장소로 유명하다. 강변 앞의 새파란 들만에 돛자리를 깔고 누워 있으면 이보다 큰 힐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또 인근에는 올해 조성된 도내 최초의 동물 없는 동물원이 있다. 'Jump AR'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이언트 캣, 자이언트 비룡, 웰시코기, 알파카, 야기비룡, 레서판다, 야기 고양이 등의 동물과 놀 수 있다.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동물들의 사랑스러운 예고도 볼 수 있다. 박물관 방문객들은 실감나는 동물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아 저장 또는 공유할 수 있다.

근처에는 박사마을 어린이클럽핑장도 있다. 현재 동절기 휴장 중이지만, 다음달 말부터 운영이 재개되면 자연 속에서 낭만을 즐길 수 있다. /강원일보=김인규기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